

월급이 통장을 스쳐 가는 사람을 위한 자동투자 설계도

22살 현역 군인이 15개월 동안 실계좌로 3,030만 원까지 쌓은 구조 전부

이 PDF는 "왜"와 "무엇을"을 다룹니다. 앱 화면과 터치 순서는 전자책에 있습니다.

fire20note.com · 인스타그램 @firemoney_kr

이 PDF를 열어야 할 사람

- 월급은 들어오는데 통장에 남는 게 없는 사람
- 투자를 해야 한다는 건 아는데 뭘 사야 할지 모르는 사람
- 차트를 볼 시간도, 뉴스를 볼 여유도 없는 사람

저는 일과 중에 폰이 없습니다. 저녁에 잠깐 쓰고 밤 아홉 시에 반납합니다.

그래서 저는 차트를 볼 수 없는 사람 기준으로 구조를 짰습니다.

시간이 없다는 게 저만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.

들어가며 — 순서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

돈이 안 모이는 이유는 대부분 금액이 아니라 순서입니다.

소비를 먼저 하고 남는 돈을 저축하려고 하면, 남는 돈은 영원히 안 생깁니다.

저축을 먼저 떼고 남은 돈으로 소비해야 모입니다.

이게 이 PDF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한 줄입니다.

나머지는 전부 이 한 줄을 자동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.

제 경우

항목	금액
월급 (병장)	150만 원
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돈	175만 원
제가 손대는 돈	0원

175만 원이 월급보다 많습니다. 계산이 안 맞죠.

재원이 세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— 임대 전에 모아둔 돈, 집에서 받는 용돈, 그리고 월급.

숨기지 않고 먼저 밝힙니다. 저는 월급만으로 이걸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.

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"내 손에 닿기 전에 빠져나가게 만든 구조"입니다.

그 구조는 월 10만 원이어도 똑같이 작동합니다.

월금별로 얼마씩 떼면 되는지는 별도 자료 「월금별 자동매수 배분표」에 정리해 두었습니다.

왜 지수인가 — 30초면 됩니다

개별 종목은 공부가 필요합니다. 지수는 구조입니다.

방식	내가 해야 할 것	한 회사가 망하면
개별 종목	매일 뉴스·실적·차트 확인	계좌가 직접 타격
지수 ETF	아무것도 안 해도 됨	수백 개로 분산돼 흡수

지수 ETF는 “시장 전체를 한 번에 사는 것”입니다.

그래서 제가 분석하지 않아도 됩니다. 분석할 시간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게 전부입니다.

세금은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

미국에 상장된 ETF는 매매 차익에 양도세가 붙습니다. 연 250만 원까지는 0원, 초과분에 22%입니다. 배당에는 15.4%가 붙습니다.

같은 지수를 따라가는 국내 상장 ETF를 중개형 ISA 계좌에서 사면 이 세금 부담을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

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투자 금액과 기간에 따라 갈립니다. 구체적인 계산과 계좌 세팅 순서는 전자책에서 다룹니다.

제 실계좌를 그대로 공개합니다

2026년 8월 11일, 토스 총자산 화면 기준입니다.

구분	금액
입출금	1,104,996원
저축 (군 적금 + 청약)	12,700,000원
투자	16,358,988원
기타	약 130,000원
합계	30,295,303원

밝혀둘 것 두 가지

1. 청약 390만 원은 제가 넣는 게 아닙니다. 부모님이 넣어주십니다.

제 판단으로 한 게 아니라서 "제 투자 전략"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.

2. 이 돈은 대부분 투자 수익이 아니라 저축이 쌓인 겁니다.

시작은 입대 전에 모아둔 600만 원이었습니다. 거기에 군 적금을 입대 직후부터 매달 55만 원,

자동매수를 2026년 2월부터 매달 120만 원 넣었습니다.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.

제 투자 계좌 수익률은 +1.6%입니다. 주식으로 불린 돈이 아니라 넣은 돈이 쌓인 겁니다.

이걸 굳이 쓰는 이유는, 이 구분을 안 하면 저도 "주식으로 3천만 원 벌었다"는

이야기를 파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.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.

투자 계좌 안쪽

역할	비중
시장 전체	약 59%
배당	약 22%
기술주	약 18%
월배당 (잔여)	약 1%

매달 12일, 120만 원이 이 비율대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. 2026년 2월부터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.

저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.

같은 사람의 두 계좌 — 이게 이 PDF의 핵심입니다

저는 계좌가 두 개입니다. 같은 사람이 굴리는데 결과가 정반대입니다.

	계좌 A	계좌 B
사는 방법	자동. 날짜·금액·비율만 정해둠	직접 골라서 매수
차트를 보는가	안 봄	봤음
수익률 (2026-08-11)	+1.6%	-22.6%

계좌 B는 제가 차트를 보고, 뉴스를 읽고, 고민해서 고른 종목들입니다.

계좌 A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한 계좌입니다.

차트를 본 쪽이 졌습니다.

여기에 하나 더 붙입니다. 2026년 5월에 저는 개별 종목에서 114만 원을 손절했습니다.

그리고 계좌 B에는 아직 안 판 종목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.

물타기까지 했는데 못 팔고 있습니다. 이유는 "언젠가 오르겠지"입니다.

이 문장을 쓰는 게 이 PDF에서 제일 불편했습니다. 그래서 씁니다.

잘된 것만 보여주는 자료는 이미 충분히 많습니다.

계좌 개설 — 대부분 여기서 막힙니다

흐름 자체는 간단합니다. 막히는 건 디테일입니다.

1. 증권사 앱 설치
2. 계좌 개설 (비대면 · 신분증 촬영 · 심사)
3. **절세 계좌 여부 결정** ← 여기서 걸립니다
4. 원화 입금
5. 자동매수 연결

3번을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세금으로 수십만 원이 나갑니다.

5번은 순서가 틀리면 자동화가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.

날짜만 정해두고 환전 설정을 안 해서 매수가 안 되는 경우가 흔합니다.

화면 캡처가 들어간 실제 순서는 전자책에 있습니다.

자동화가 작동하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

- **날짜**: 월급일 기준 +2일. 저는 10일에 월급이 들어오고 12일에 매수가 실행됩니다
- **금액 또는 비율**: 종목별로 정해둡니다
- **환전 연동**: 해외 ETF라면 이게 안 되어 있으면 매수가 실패합니다

세팅이 끝나면 그 뒤로는 할 일이 없습니다.

저는 폰을 반납한 상태에서도 매달 매수가 실행됩니다.

절대 하지 마라 — 네 가지

1. 레버리지에 손대기

2배 수익은 2배 손실입니다. 대응할 수 없는 환경에서 레버리지는 계좌를 날립니다.

저는 안 씁니다.

2. 하락할 때 전부 팔기

자동화를 해놓고 하락장에 손으로 꺼버리면 자동화를 한 의미가 없습니다.

제 경우엔 오히려 폰을 못 쓴 게 저를 살렸습니다.

지수가 일주일에 7% 넘게 빠진 적이 있는데,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.

그래서 안 팔았고, 그게 결과적으로 맞았습니다.

3. 월급 전부 넣기

비상금은 현금으로 남겨두세요. 예상 못 한 지출은 반드시 생깁니다.

4. 매일 앱 확인하기

수익률을 자주 보면 손이 나갑니다. 자동화의 핵심은 안 보는 것입니다.

저는 한 달에 한 번, 12일에만 봅니다.

마지막 — 다음 한 걸음

이 PDF는 "왜 이렇게 하는가"를 설명했습니다.

전자책은 "어떻게 세팅하는가"를 화면 순서 그대로 담았습니다.

전자책에 있는 것:

- 앱 실제 화면 캡처 — 터치 순서 그대로
- 중개형 ISA 계좌 세팅
- 환율 자동 연동 + 리밸런싱 기준
- 폭락장에 뭘 하고 뭘 안 할지
- 월급 대비 투자금 계산

자동투자 완전 실행 가이드 · 19,000원

kmong.com/gig/744008

사기 전에 이걸 알고 계세요

이 PDF만 읽고 그냥 자동이체 하나만 걸어도 됩니다. 그게 제일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.

전자책은 그 다음에 막히는 사람을 위한 겁니다. 급하지 않습니다.

제 계좌는 마이너스 난 것까지 매달 12일에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.

사기 전에 그걸 먼저 보셔도 됩니다.

계산기 · 무료 자료 · 매달 결산 전부 여기 있습니다

fire20note.com/start

fire20note.com · [@firemoney_kr](https://www.instagram.com/firemoney_kr)